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여성 14,43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 여성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차별, 우울, 사회적 지지,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과 도시지역

* 교신 저자 :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Tel: 031-299-1397, E-mail: pennee@naver.com

1.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결혼(257,622건) 중 국제결혼(22,698건)은 8.8%를 차지하며(통계청, 2019)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 주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결과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한국에 정착하여 시민으로 살아갈 주체로서 한국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여전히 '한국어가 서툰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인종적 차별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40.7%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2016).

차별은 동일한 사회 내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특정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은 대부분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혐오, 배제, 분리 등의 기제가 작동하는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이윤호, 김대권, 2007). 또한 차별은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 특징과 같은 개인이 가지는 고유

한 특성이나 지위, 빈부,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배화옥, 김성희, 2004). 이러한 차별의 기제는 한국인과 다른 인종집단이며,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은 다문화 가족의 일원인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이주를 하면서 이미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사회로부터 차별까지 경험할 경우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차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은 차별이 주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하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저하되는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조영아, 2011; Kim, Yoo Cho, Kim & Park, 2010).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정착하여 살아갈 이민자로 인식하며 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응과 경제적 역량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응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와 사회적응 그리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해서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안현미, 김미옥, 201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

혼이민자 여성들의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고, 차별과 건강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은 최근 조금씩 소개되고 있다(김두섭, 2015;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류한수 2016; 나장함, 김희주, 2017).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차별과 신체와 정신적 건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이러한 경험이 개인의 환경이나 자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나장함과 김희주(2017)의 연구에서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결혼이민자들을 전체 대상으로 놓고 차별과 건강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역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로 이주 후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주지역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이주한 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요구받는다(김두섭, 2015).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문화적응의 수준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여건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숙과 안숙희(2011)는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이 도시거주자보다 경제문제와 주부생활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배우자의지지 정도는 도시거주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와 같은 거주 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민관련 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구사회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결혼이민자의 연령과 혼인 상태, 교육수준, 소득, 취업여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주은, 조준금, 2014; 김혜미, 2016).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낮고 배우자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낮고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우울정도가 더 높다는 상반된 연구(박기태, 김두섭, 2019)도 있어 이 요인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의 우울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소

특이 높고 취업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일수록 우울의 위험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연수, 2014). 그 외에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박기태, 김두섭, 2019).

이민과 관련된 요인들로는 한국어 수준과 거주기간이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결혼이민자일수록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미, 2016).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박민희, 양숙자, 지연경, 2015), 거주기간과 우울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김연수, 2014).

2) 차별과 우울

차별과 우울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우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우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우울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두 요인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있어서 여성일수록 그리고 아시아 등 비서구권 출신일수록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김두섭(2015)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차별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거주지역에 같은 민족집단의 구성원

이 많을수록 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장함과 김희주(2017)도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이민자 외에 다른 집단에서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유형의 차별은 노인의 우울과 깊은 관계가 있고(김일호, 천희란, 2015), 고령장애인의 경우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승현, 신유리, 김정석, 2017).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차별경험과 우울 간의 높은 연관성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3) 사회적 지지와 건강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는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과 만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주, 전미경, 2013). 해외 연구에서도 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들이 적응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Chadwick & Collins, 201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이민자가 경험하는 인종차별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투입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적용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은 적용 스트레스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도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완충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Panchang, Dowdy, Kimbo & Gorman, 2016). 이렇듯 외국의 연구에서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국내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경우 가족 안에서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생활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같은 출신국 여성들과의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제한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박재규, 2010; 김연수, 2012).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조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변수 정의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태를 전국단위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중 가장 많은 사례수와 대표성을 확보한 데이터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응답 대상자 중 14,332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우울이다.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1점)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5점)까지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거리나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직장/일터 그리고 학교와 보육 시설에서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 유무를 합산하여 차별을 경험한 경우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집안일이나 일자리문제, 자녀 교육, 여가나 취미생활, 몸이 아플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한국인, 같은 출신국 사람, 기타 외국인)에 상관없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 1로, 없다고 대답한 경우 0으로 처리한 후 이 값들을 모두 합산한 최종 점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0에서 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최종학력, 소득, 취업여부,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속변수로 구성하였고, 학력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소득은 100만원 이하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연속변수로 구성하였고, 취업여부는 취업 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이비변수이다. 또한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동거 중이면 0, 이혼이나 사별, 별거 중일 경우 1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전혀 못한다(1점)부터 매우 잘한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주기간은 2-5년부터 13년 이상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생활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역점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고, 농촌과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우울과 차별경험, 사회적지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농촌과 도시 등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거주지역 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센터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고, 심한 다중공선성으로 간주되는

VIF 값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농촌 거주 5,144명, 도시거주 9,188명으로 농촌과 도시지역 응답자 모두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각 35.6%, 36.8%), 20대, 40대 순이었다. 학력 또한 농촌과 도시지역 응답자 모두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나(43.3%, 42.3%) 중학교 이하의 경우 도시(24.1%)보다 농촌지역(32.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교 이상은 도시지역(33.6%)이 농촌(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400만원이 농촌과 도시 모두 가장 높았고(54.0%, 52.5%), 100-200만원, 40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 유무에 있어서는 농촌의 경우 61.0%가 취업중으로 나타났고 도시는 55.1%가 취업중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비율이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 또한 농촌과 도시 모두 혼인 중인 응답자가 현저하게 많았다. 생활만족도는 농촌지역 응답자는 약간만족이 3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도시지역은 보통이 34.3%로 가장 높아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은 1,910명,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은 3,07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농촌과 도시 모두 13년 이상(34.1%, 37.3%)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6-9년(29.2%, 27.5%), 10-12년(23.2%, 2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농촌과 도시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

변수	단위: 명(%)	
	농촌거주 (N=5,144)	도시거주 (N=9,188)
연령	29세 이하	2,277(25.8)
	30-39세	3,385(36.8)
	40-49세	2,124(23.1)
	50-59세	990(10.8)
	60세 이상	412(4.5)
학력	중학교 이하	2,184(24.1)
	고등학교	3,839(42.3)
	대학교 이상	3,045(33.6)
소득	100만원 미만	745(8.1)
	100-200만원	2,000(21.8)
	200-400만원	4,817(52.5)
	400만원 이상	1,626(17.7)
취업 활동	아니요	4,124(44.9)
	예	5,064(55.1)
결혼 상태	혼인 중	8,244(89.7)
	별거, 이별, 사별	944(10.3)
	전혀 만족 없음	148(1.6)
생활 만족 도	별로만족	826(9)
	보통	3,153(34.3)
	약간만족	2,854(31.1)
	매우만족	2,207(24)
	전혀 못함	35(0.4)
한국 어수 준	못함	760(8.3)
	보통	3,071(33.4)
	약간 잘함	2,543(27.7)
	매우 잘함	2,779(30.2)
거주 기간	2-5년	1,231(13.4)
	6-9년	2,523(27.5)
	10-12년	2,004(21.8)
	13년 이상	3,430(37.3)

다음으로,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농촌과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 간에 평균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에 따른 우울, 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의 차이

	N	평균/총점		F	t
		농촌	도시		
우울	농촌 5,144	1.43/4		37.631	-5.151***
	도시 9,188	1.49/4			
차별 경험	농촌 5,144	.36/2		145.259	-5.766***
	도시 9,188	.41/2			
사회적 지지	농촌 5,144	3.1/5		.814	1.471
	도시 9,188	3.06/5			

***p<.001, **p<.01, *p<.05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과 차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지지 수준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지역 거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변수는 우울과 차별 경험 변수이다. 즉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고, 차별경험이 낮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농촌과 도시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연령, 학력, 소득, 취업활동 유무, 결혼 상태, 생활만족도,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연령(B=-.042, p<.001), 소득(B=-.021, p<.001), 취업활동 여부(B=-.038, p<.01), 결혼상태(B=.120, p<.001), 생활만족도(=.260, p<.001), 한국어 수준(B=-.031,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별거나, 이혼, 사별의 결혼상태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령(B=-.040, p<.001), 소득(B=-.022, p<.001), 취업활동 여부(B=-.042, p<.001), 결혼상태(B=.110, p<.001), 생활만족도(=.247, p<.001), 한국어 수준(B=-.025, p<.001) 외에 독립변수로 투입된 차별경험(B=.159, p<.001)와 사회적 지지(B=-.01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별거나, 이혼, 사별의 결혼상태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차별 경험에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수	B	S.E.	β	p	F
1	(상수)	2,745 ***	.037		.000	323,586***
	연령	-.042 ***	.006	-.066	.000	
	학력	.011	.006	.014	.074	
	소득	-.021 ***	.005	-.039	.000	
	취업활동	-.038 **	.011	-.028	.001	
	결혼상태	.120 ***	.021	.048	.000	
	생활만족도	.260 ***	.006	.373	.000	
	한국어수준	-.031 ***	.006	-.044	.000	
	거주기간	-.004	.006	-.007	.484	
	2	(상수)	2,619 ***	.038		
연령		-.040 ***	.006	-.062	.000	
학력		.010	.006	.014	.087	
소득		-.022 ***	.005	-.041	.000	
취업활동		-.042 ***	.011	-.030	.000	
결혼상태		.110 ***	.021	.044	.000	
생활만족도		.247 ***	.006	.356	.000	
한국어수준		-.025 ***	.006	-.035	.000	
거주기간		-.006	.006	-.009	.348	
차별경험		.159 ***	.011	.114	.000	
3	(상수)	2,618	.038		.000	260,414***
	연령	-.040 ***	.006	-.063	.000	
	학력	.010 ***	.006	.014	.000	
	소득	-.022 ***	.005	-.041	.000	
	취업활동	-.042 ***	.011	-.030	.000	
	결혼상태	.110 ***	.021	.044	.000	
	생활만족도	.247 ***	.006	.356	.000	
	한국어수준	-.024 ***	.006	-.035	.000	
	거주기간	-.006	.006	-.009	.368	
	차별경험	.159 ***	.011	.114	.000	
사회적 지지	-.015 ***	.004	-.039	.000		
차별경험*사회적 지지	.012	.011	.011	.265		

***p<.001, **p<.01, *p<.05, †p<.10

3단계에서는 연령($B=-.040, p<.001$), 학력($B=.010, p<.001$), 소득($B=-.022, p<.001$), 취업활동 여부($B=-.042, p<.001$), 결혼상태($B=.110, p<.001$), 생활만족도($-.247, p<.001$), 한국어 수준($B=-.024, p<.001$), 차별경험($B=.159, p<.001$)와 사회적지지($B=-.015,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별거나, 이혼, 사별의 결혼상태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1,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통제변수와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는 3단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경험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농촌과 도시지역 비교

〈표 4〉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농촌지역

단계	변수	B	S.E.	β	p	F
1	(상수)	2,701	.058		.000	111,369***
	연령	-.050***	.010	-.079	.000	
	학력	.014	.010	.019	.149	
	소득	-.018*	.008	-.034	.016	
	취업활동	-.055**	.019	-.041	.003	
	결혼상태	.162***	.042	.052	.000	
	생활만족도	-.248***	.009	-.364	.000	
	한국어수준	-.031**	.010	-.045	.002	
	거주기간	-.007	.010	-.012	.479	
	2	(상수)	2,599	.060		
연령		-.047***	.010	-.075	.000	
학력		.011	.010	.015	.267	
소득		-.021**	.008	-.039	.006	
취업활동		-.059**	.019	-.044	.001	
결혼상태		.152***	.042	.049	.000	
생활만족도		-.238***	.009	-.348	.000	
한국어수준		-.024*	.010	-.035	.015	
거주기간		-.009	.010	-.015	.369	
차별경험		.154***	.018	.114	.000	
3	(상수)	2,597	.060		.000	89,803***
	연령	-.047***	.010	-.075	.000	
	학력	.011	.010	.015	.245	
	소득	-.021**	.008	-.039	.005	
	취업활동	-.058**	.019	-.043	.002	
	결혼상태	.154***	.042	.050	.000	
	생활만족도	-.238***	.009	-.348	.000	
	한국어수준	-.023*	.010	-.034	.017	
	거주기간	-.009	.010	-.014	.396	
	차별경험	.154***	.018	.113	.000	
사회적 지지	-.015*	.006	-.039	.018		
차별경험*사회적 지지	.036*	.018	.032	.044		

***p<.001, **p<.01, *p<.05, †p<.10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여성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나누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 <표 4>와 같다.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분석에서 유의미했던 통제변수들이 농촌지역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별거나, 이혼, 사별의 결혼상태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차별 경험에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전체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 우울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도시지역

단계	변수	B	S.E.	β	p	F
1	(상수)	2,786	,047		,000	211,416***
	연령	-.040 ***	,008	-.063	,000	
	학력	,006	,008	,008	,410	
	소득	-.025 *	,006	-.048	,016	
	취업활동	-.021	,014	-.015	,143	
	결혼상태	,086 **	,025	,037	,001	
	생활만족도	-.264 ***	,007	-.376	,000	
	한국어수준	-.033 **	,008	-.047	,002	
	거주기간	-.001	,008	-.001	,916	
	2	(상수)	2,645	,049		
연령		-.037 ***	,008	-.058	,000	
학력		,008	,008	,011	,291	
소득		-.024 ***	,006	-.047	,000	
취업활동		-.027?	,014	-.019	,063	
결혼상태		,080 **	,025	,035	,001	
생활만족도		-.251 ***	,007	-.358	,000	
한국어수준		-.027 ***	,008	-.038	,000	
거주기간		-.003	,008	-.004	,740	
차별경험		,159 ***	,014	,112	,000	
3	(상수)	2,645	,049		,000	169,687 ***
	연령	-.037 ***	,008	-.058	,000	
	학력	,008	,008	,011	,291	
	소득	-.024 ***	,006	-.047	,000	
	취업활동	-.027?	,014	-.019	,063	
	결혼상태	,080 **	,025	,035	,001	
	생활만족도	-.251 ***	,007	-.358	,000	
	한국어수준	-.027 ***	,008	-.038	,000	
	거주기간	-.003	,008	-.004	,741	
	차별경험	,159 ***	,014	,112	,000	
사회적 지지	-.015 **	,005	-.038	,003		
차별경험*사회적 지지		,000	,014	,000	,983	

***p<.001, **p<.01, *p<.05, †p<.10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연령, 소득,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한국어 수준 등의 통제변수들이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활동의 경우 1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가 2, 3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p < .10$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도 수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별거나, 이혼, 사별의 결혼상태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차별 경험에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 변수의 경우 전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과는 달리 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분석했을 때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분석 결과에서만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차별경험이 우울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위험을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이 두 요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연령과 소득, 취업활동 여부,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한국어 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전체 결혼이민자와 농촌과 도시지역 결혼이민자를 구분하였을 때 1-3의 모델에서 우울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에 있으며 별거나 이혼, 사별 중인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조주은, 조준금, 2014; 김혜미, 2016; 박기태, 김두섭, 2019).

둘째, 차별경험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경험이 있거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정신건강이 나빠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유균 외, 2015; 류한수, 2016; 나장함, 김희주, 2017; 노승현 외, 2017).

셋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

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은주, 전미경, 2013; 나장함, 김희주, 2017; Chadwick & Collins, 2015).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경우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등을 완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우울 및 정신건강의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차별경험과 우울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위는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간 관계가 폐쇄적이고,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지지하는 다양한 사회체계가 많을 경우 차별경험으로 인해 우울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자를 포함하여 사회 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 외에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은 직장이나 공공기관, 학교, 거리와 같이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나장함, 김희주, 2017).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금지 교육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학교나 보육기관 등에서 다문화인식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차별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초등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릴 때부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 '국제결혼의 피해자'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제거하여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관계망도 대부분 같은 출신국 이민자들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확보된 도시와 달리 농촌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환경적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폐쇄적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농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할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여성들을 위한 모임 또는 비슷한 또래의 한국인 여성들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을 조직하여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한 가능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민간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조모임들을 활성화하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지지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주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지원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함께 보다 발전된 결과를 위한 후속연구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차별과 우울 간의 관계를 횡단연구를 통해 규명하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차별이 우울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차별을 경험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의 유형들을 고려하여 우울이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과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농촌과 도시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15).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이 혼인이주여성의 차별 경험과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주변효과, *가족과 문화*, 27(4), 34-61.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
- 김연수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575-583.
-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

- 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
 건사회연구, 35(3), 421-451.
- 김일호, 천희란 (2015). 노인차별과 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지역 비
 교, 한국노년학, 35(2), 433-450.
- 김혜미 (2016). 다문화가족 여성 배우자의 건
 강에 대한 탐색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지, 17(3), 252-261.
- 나장함, 김희주 (2017). 결혼이민자의 차별경
 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
 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485-496.
- 남인숙, 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
 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노승현, 신유리, 김정석 (2017). 고령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21(2), 113-137.
-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 박기태, 김두섭 (2019). 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
 지의 근원에 따른 혼인이주여성의 정신
 건강, 한국사회, 20(1), 93-122.
- 박민희, 양숙자, 지연경 (2015). 여성결혼이민
 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
 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298-311.
- 박재규 (2010).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
 과 분석, 지역사회학, 12(1), 81-110.
- 배화옥, 김성희 (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
 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 61-91.
- 안현미, 김미옥 (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중재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
 구, 14(12), 245-256.
- 이윤호, 김대권 (2007).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
 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27-60.
- 이은주, 전미경,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
 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31(5), 125-141.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외 (2016). 2015년 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조주은, 조준금 (2014). 결혼이민여성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에 대한 탐
 색, 다문화사회연구, 7(2), 5-28.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
 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
 구, 12(1), 1-19.
- 통계청(2019). e 나라지표: 국제결혼현황.
[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243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1182.
- Chadwick, K. A. & Collins, P. A. (2015).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vailability, urban center
 size, and self-perceived mental health of
 recent immigrants to Canada: A mixed-
 methods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128, 220-230.

- Kim, M. K., Yoo, S. H., S. Cho, Kwon, E. J., Kim, S. & Park, J. Y. (2010).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health risk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5), 79-89.
- Panchang, S., Dowdy, H., Kimbo, R. & Gorman, B. (2016). Self-rated health, gender, and acculturative stress among immigrants in the U.S.: New roles for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120-132.

투고일자: 2019. 10. 16.

심사일자: 2019. 11. 13.

게재확정일자: 2019. 11. 28.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mong Foreign Spouses based on their Resident Area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Heejoo Kim

Hyup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foreign spouses based on their resident areas. For the analysis, 14,432 sampled female foreign spouses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elect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iscrimin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while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of female foreign spouses.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mong foreign wives residing in rural areas, which means that it enhanced the negativ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qualitative research of discrimination and health as a future study, and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for foreign spouses.

Keywords : *Discrimin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Foreign spouses, Rural and urban areas*